#1 어두운 골목길/밤

멍하게 보이는 승태의 얼굴이 보이며 줌 아웃 된다. 방 주변이 쓰레기로 가득 차 더럽다.승태, 코인 폭락 그래프를 보고 있다. 평소 연락하지 않던 고등학교 동창 고동에게 전화를 건다.

승태 어 여보세요

승태 어 고동아... 나 승태야 어... 잘 지내냐?

승태 어 오랜만에 전화해서 이런 말 하기 미안한데…다름이 아니라 우리 집 집세를 내일까지 내야 하는데...

/

승태 나 돈 들어오는 게 다음주라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돈 들어오면 바로 줄게...어 정말 미안하다... (

승태 어 어 어 어 그래… 고맙다 어 다음에 내가 밥 한번 살게. 그래 어 고맙다. 어~

/가제:

/

승태는 친구 고동에게 받은 돈을 다시 코인에 투자한다.

하지만 그 코인 역시 나락을 친다.

F.O

#2 편의점 앞/밤 //S#1 의 다음주

승태 (나락인 그래프를 보며) 씨발!

승태는 화를 내며

술을 마시는 승태. 그 옆에 있는 핸드폰 코인 어플 , 한숨 쉬며 다시

술 몇 잔 마시다가 누군가에게 전화가 온다.

친구 고동에게서 전화가 걸려오지만 받지 않는다. 전화가 다시 걸려오고 할 수 없이 전화를 받는 승태. 하지만 그 전화는 고동이가 아니었다.

승태 고동아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든 값을게. (술 취한 목소리로)

???(E) (변조된 목소리, 말 끊으며) 어이.

승태 누구세요 (술 취한 목소리로)

???(E) (변조된 목소리) 돈 때문에 미칠 지경이지? 내가 빛 다 갚아 줄까?

승태 아이 씨발… 장난 쳐 하지마 개새끼야 할 짓 없냐?

???(E) (변조된 목소리)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다 갚아 줄게. 어때?

승태 에휴… 너 누구야? 재수가 없으려니… (전화를 끊으려는 하는 승태)

???(E) (변조된 목소리) 조승태. 28세. ㅇㅇ고시원 . 빚 2억.

전화를 끊으려던 승태는 전화를 끊지 못하고 손을 덜덜 떨기 시작한다.

???(E) (변조된 목소리) 지금 돈 갚을 다른 방법, 없잖아?

오랜 버릇인 손톱을 뜯으며 잠시 생각하는 승태.

승태 (반신반의의 상태로) 야 너 이런 정보는 도대체 어디서 얻는 거니? 이딴거에 속을 줄 알아? (술 취한 목소리로) 꺼져 새끼야

승태는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린다. 하지만 빚에 대한 걱정으로 초조해한다.

#3 고시원 안/저녁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일어난 승태. 빚을 갚을 궁리를 해본다. 이윽고 빚 갚으라는 독촉 문자가 온다. (고동 : 박승태 ㅅ발새끼야 너 당장전화받아. 경찰에 신고하기전에)

승태 씨발…

승태는 배가 고파 편의점으로 나선다.

#4 편의점 앞/밤

편의점 닭꼬치를 먹으며 서있는 승태. 씻지 않은 듯 머리가 엉망이다. 길을 걷다가 동네 양아치가 일부로 만만해 보이는 승태에게 어깨빵을 시전한다.

양아치 아 이 ㅅ발, 야! (승태가 뒤를 돌아본다)

너 일로와바.

양아치 (승태의 어깨를 치며) 저기요.. 눈까리가 있으면 앞을 제대로 보셔야죠? 예?

승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양아치 (웃으며) 븅신. ㅋㅋㅋㅋ

양아치가 승태의 뺨을 몇 대 때리고 돌아간다. 승태는 순간 화가 났지만 참는다. 돌아가려던 찰나 발신표시 제한번호. 승태의 폰이 울린다.

???(E) (변조된 목소리) 아저씨. 계속 그렇게 ㅂ신 같이 패배자처럼 살 거야? 내 말 잘들어. 지금 아저씨는 돈 메꿀 방법도 없고 계속 이렇게 살기는 억울하잖아? 저 양아치 죽이면 그 빛 내가 갚아 줄게 어때?

승태 (무언가에 홀린 듯 중얼대며) 그래. 내가 왜 사과해야 돼... 돈을 갚을 방법도 딱히 없고… 밑져야 본전이지.

쥐고 있던 꼬치를 단단히 쥐며 양아치를 미행한다.

양아치 아우 추워 ㅅ발.

양아치가 공중화장실에 들어가자 승태가 기다렸다는 듯이 따라 들어간다.

오줌을 다 싸고 손을 씻던 양아치에게

승태 아까 때린 거… 사과하세요.

양아치 뭐야 ㅅ발 , 아! 아까 그 새끼네 ㅋㅋㅋ 너 진짜 한번 뒤져볼래?

승태 사과하라고요! (양아치에게 달려든다 냥냥펀치)

양아치 아 이 새끼가 / (순간 정색하며)

양아치가 승태를 때리고 밀친다 쓰러진 남주는 들고 있던 꼬챙이로 양아치의 목 부분을 찌르게 된다. 경동맥을 찔린 양아치는 그대로 주저 앉는다.

승태 어 어…

남주는 화장실에서 도망치듯 뛰쳐나간다.

#5 고시원 안/밤

승태는 화장실에서 피 묻은 손을 박박 닦고 있다.

다시 발신제한번호로 전화가 온다

???(E) (변조된 목소리) 아저씨, 안녕?

승태 (살짝 진지하게 조용한 목소리로) 돈이나 내놔 이 ㅆ발 새끼야. (큰 목소리로 흥분하며) 너 내가 무슨 일을 한 줄 알아? 사람을 죽였다고!

문 밖에서 승태를 찾는 고동이가 현관문을 두드린다. 하지만 승태는 듣지 못한다. 집에 아무도 없는 듯 하여 돌아서려고 한다

???(E) (변조된 목소리) 오 진정하라구… 생각이 바뀌었어. 앞으로 몇 가지 일만 더하면 그때 갚 아 줄게. 돈이란 게 그렇게 쉽게 벌 수 있는 게 아닌 건 아저씨도 잘 알잖아?

승태 씨발! 말이 다르잖아! (절망하며 책상에 엎드려 있는 승태)

(승태의 목소리를 듣고 집에 있는걸 인지한 고동이가 큰 소리로 문을 두드리며 승태를 찾는다)

고동: ㅑ 박승태 ㅅ발 새끼야 문 안 열어? 당장 열어! (문을 큰 소리로 두드리며 재촉한다)

그제서야 승태는 그 소리를 듣는다.

???(E) (변조된 목소리) 그것보다 고동이 저 새끼 좀 ㅈ같지 않아? 돈 얼마 안 갚았다고 ㅈ랄이나 하고 말이야. (웃음)

승태 (체념한 목소리로) 그래도 돈을 갚지 않은 내 잘못이지…

???(E) (변조된 목소리) 그런 식으로 사니까 아저씨 인생이 그런 거야. 다르게 생각해 봐 저 새끼 옛날부터 뭐든 다 가졌잖아? 그러면 좀 베풀 줄도 알아야 하는 거지.

승태가 천천히 현관문을 연다. 정말로 문을 열어서 당황한 듯한 고동.

고동 : ㅑ 개새끼야 내 돈 내놔 당장! ( 승태의 멱살을 잡으며 )

승태 : 일단 말로 풀자 들어와바 ( 무표정으로)

고동이는 들어와 바닥에 앉는다. 승태는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고 마시기 시작한다. 그리고 고동 옆에서 소주 마시는 척을 한다. 소주를 마시고 만취한 고동은 잠에 들고 승태가 목을 졸라 질식시킨다.

#6고시원 안/밤

고시원 화장실에서 시체를 토막내는 승태. 신체 부위를 비닐에 버린다.

잘되지 않는지 꽤 고생한다. 결국 자르던 칼이 부러져 버린다.

승태 (감정이 메마른 듯)아. 부러졌다. 피가 묻은 손을 간단히 씻어내고 밖으로 나간다.

#7 편의점/밤

새로운 칼과 큰 검정 비닐봉지를 사고 다시 돌아간다.

???(E)

#8 고시원 안/아침

시간이 꽤 흐르고 승태는 허공에 칼을 찌르는 시늉을 한다. 화장실 옆에는 큰 검정 비닐봉지가 놓여 있다. 도어락이 눌리는 소리가 들리고 승태의 형이 들어온다.

형 야 승태야 엄마가 반찬 가져다 달래서 왔다.

집을 둘러보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봉지를 보지 못하고 손 씻고 오줌 싸고 거울보면서 계속해서 동생한테 잔소리나 말을 거는 형..

형을 투명인간 마냥 쳐다보지도 않는 승태. 그런 승태는 살짝 보고는 손을 씻기 위해 화장실로 향하는 형. 화장실을 들어가는 순간 형 뒤쪽으로 동생이 앉아서 전화를 받는 행동이 슬며시 보인다. 화장실에는 약간의 붉은 액체와 검은 비닐봉지가 있다.

형 응? 뭐지 이건? ( 긴장감을 높이는 음악)

내용물을 보기 위해 봉지를 들추고 그냥 쓰레기가 보인다

형 야 이런 거는 좀 버려라 화장실에 두지 말고 어?

다시 방으로 와서 냉장고 쪽을 보는 형. 반찬을 넣어주려고 냉장고를 열어보다가 시체를 발견한다. 그때 승태가 뒤에서 형을 찌른다.

형 악………! 악……..!

(검은화면- 시간의 흐름)

쓰러진 형을 보는 승태. 그리고 다시 전화가 온다.

승태 (따지듯) 돈은… 언제 갚아 주는 거지?

???(E) (변조된 목소리) 글쎄

승태 (거칠게) 씨이발! 빚 갚아준다며. 빚 갚아준다며! 시키는 대로 하면… (흐느끼며) 갚아준다며…

남주의 흐느끼는 모습이 처절해 보인다.

???(E) (변조된 목소리, 웃으며) 알았어. 알았어. 확실히 갚아줄게. 근데 그거 알아?

???(E) (남주의 목소리와 비슷해지며) 너도 즐겼잖아? ㅋㅋㅋ

흐르는 눈물사이로 보이는 승태의 미소

???(E) 바로 빚 청산하자. 저기 문 보이지? 저기 문 열어봐.

승태 문? 이거?

???(E) 어. 그 문 열고 나가면 돼.

승태 (문을 천천히 당기며, 울면서 행복한 듯) 이거 열고 나가면 된다는 거지? 그래.

승태가 ‘문’을 열고 발을 내딛는 순간 화면이 검게 되고 쿵 소리가 난다. 천천히 페이드 인 되며 열린 ‘창문’이 보이고 자동차 충격 알림음이 울려 퍼진다.